

전남도, 전국 첫 ‘출생기본수당’…출산율 반등 ‘건인’

1분기1.13명…전국 대비 0.31명↑ 제도 도입 5개월 만에 실효성 입증 18세까지 월 20만원…양육비 도움 “국가 출산·양육 책임제 적극 건의”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이 시행 5개월 만에 출산가정의 높은 호응 속에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회복이라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자료

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분기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인 0.82명보다 0.31명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이 같은 출산지표는 지난해 전남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1.0명대를 회복한 데 이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킨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이 같은 반등세에 지난해부터 준비한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이후 전남에서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학령기 이후 양육부담까지 고려한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와 부모들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일회성 영유아 지원의 한계를 보완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출생기본수당은 단기적 바우처 중심의 기존 정책과 달리 자녀의 성장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책으로 설계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 지난 2월 출산가정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기존 지원은 대부분 바우처 형태이고 영유아기에 집중됐지만, 출생기본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돼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특히 18세까지 이어져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고,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 자녀를 양육 중인 또 다른 어머니는 “출생기본수당 덕분에 교육비나 식비 등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딱내 덕분에 ‘함께 키우는 전남’이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긍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생기본수당 외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아이와 가족이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 출산·양육 책임제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inilbo.com

전일빌딩245, 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 마련

전세대 즐기는 토요일 행사 ‘풍성’ 가족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광주광역시에는 도심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전일빌딩245에서 오는 11월까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 ‘공감’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감’은 매주 토요일 전일빌딩 245에서 열리는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공연·전시·플리마켓·체험활동 등이 다양하게 마련돼 도심 속 문화쉼터 역할을 한다.

올해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통해 재조명된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영감을 받은 인문 투어를 비롯해 전일빌딩 245 입주 기관과 연계한 인문 강연 ‘전일 245 클래스’, ‘책 읽어주는 여자·남자’ 등 인문 중심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전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일245展’, ‘내 생애 첫 전시’를 비롯해 전일빌딩245 특화 게임으로 개발된 AR게임인 ‘AR게임투어-명탐정

전일’이 마련된다.

‘책 읽어주는 여자·남자’는 오는 14일과 28일 두 차례 진행되며, ‘혼모노’의 성해나 작가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의 김기태 작가가 시민들과 만남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체험행사도 풍성하다.

‘액션! 아트놀이터’에서는 나비케이크 만들기, 나만의 페라리움 만들기, 강아지 보틀 케이크 만들기, 모루로 만드는 탁상시계, 비누 속 이야기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이 매주 토요일마다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기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설치된 ‘전일뽕뽕오락실’에서는 에어바운스, 레트로 게임기, 아동용 놀이기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사전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전일마당 공식누리집, 인스타그램(@jeonil.madang),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아 기자



투표지분류기 최종 점검

장용기 광주시선관위 위원장이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 광산구 개표소인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시, ‘CES 2026’ 지역 기업 공동관 운영

신산업·AI 등 17개사 20일까지 모집 내년 1월 참가…전시부스비 등 지원

광주광역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내년 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 참가할 지역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시회로, 최신 기술과 미래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전세계 바이어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행사다.

광주시는 광주공동관,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Startup)’ 통합관 참가기업을 포함해 총 17개사 규모로 광주관을 조성

해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신산업·혁신기술·인공지능 분야 지역 중소기업이다. 광주시는 선정 기업에 △전시부스비 △항공사 △물류비 △통역비 △‘CES 혁신상’ 신청비 및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참가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마케팅 실무교육과 글로벌 전시회 대응력 향상 프로그램도 제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13~20일까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자우편(CES@gicon.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이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도약팀(062-610-2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강기정 시장이 직접 지역기업들을 이끌고 ‘CES 2023’에 처음 참가한 이후, 매년 지역 기업들과 함께 CES에 참가하며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넓혀왔다.

특히 올해 열린 ‘CES 2025’에는 지역 기업 15개사가 참가해 광주의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알렸다. 전시 기간 6300명의 방문객에게 광주의 혁신기술을 선보였으며,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371건, 5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

(주)고스트페이스 등 광주의 6개 기업은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과 혁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생체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보안·결제 솔루션으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성아 기자

전남도, LA 한식요리경연대회서 남도음식 홍보

수출 농수산물식품 시식 등 마련 “미국 주류시장 진출 확대 총력”

전라남도 미주사무소는 최근 LA 한국문화원이 허버 칼리지와 개최한 ‘2025 한식 요리 경연대회(Taste of Korea)’에서 전남 농수산물식품과 주요 관광지, 남도 음식을 홍보했다.

2025 한식 요리 경연대회에선 전통 장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계기로 현지에서 전통 장 문화의 우수성과 K-푸드로 알려진 한식 홍보 활동을 펼쳤다.

전남해양수산과학관 리모델링 마무리 ‘재개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관은 건물 안전등급 향상을 위한 보강 공사와 본관동 전시시설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재개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987년 개관한 해양수산과학관은 한려수도의 중심인 여수 돌산에 위치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능성어와 돔류 등 남해안 토산어종과 미국 하와이·홍해 서식 열대어 등 다양한 바다생물 100종, 5000여 마리를 전시하고 있다.

멸종위기 바다거북과 아기 가오리 등 계절별 특별전시 및 지역 어업문화 소개 등으로 생물 다양성 교육장 역할을 하며,

수십 년간 큰 인기 속에 세대를 아우르는 해양 학습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물고기 먹이주기, 닥터피쉬 체험, 해양생물 그림 그리기 등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 수족관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두족류·패류 특별전시관’에선 갑오징어, 문어, 참소라(피뽕고동), 키조개, 홍합(진주담치) 등 우리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산생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특별전시관은 생동감 넘치는 해양생물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2곳 선정

휴먼리소스·참조은푸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광주광역시에는 올해의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휴먼리소스 유한회사와(주)참조은푸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8개의 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두 기업에는 각각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경영 상담(컨설팅) △판로 확대 △홍보 마케팅 △네트워킹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휴먼리소스 유한회사는 건물시설관리,

청소, 방역, 컨설팅 등 건물관리 전문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주)참조은푸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위탁급식 전문 기업으로,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통해 지역 상생을 실현하고 있다.

광주시는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두 기업이 지역사회 내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우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성아 기자